Daishin 증권

2026년 1월 2일 금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최고치 돌파는 2026 년으로 미뤄두고 한 해를 마무리

- 고점 부담에도 4,200선을 지켜낸 코스피, 하단을 지지한 반도체
- 귀금속, 원자재 시장 급락. 글로벌 증시 단기 수급부담 가능성
- 특징업종: 2차전지 업종 계약 축소 악재 / 미디어엔터, 건설업 상승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반도체 사이클과 CES, 그리고 고용

- 금리인하와 재정 정책으로 산업 성장 촉진중인 미국, 고용지표 대기중
- 핵심은 AI와 기술기업의 방향성, CES 2026은 성장주로의 수급 이동 자극
-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예정,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Global Strategy

[더 글로벌 레이더. 주간 증시 전략 / 1 월 2 주차] 병오년 새해 증시, 산타 랠리에 이은 1 월 효과 기대

- 1월 FOMC 전 발표되는 美 경제지표 주목. 9일 25.12월 고용, 13일 12월 CPI, 14일 12월 PPI
- 1월 금리 동결 결정되더라도 올해 연준이 더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물꼬를 터주는 계기
- 1월 중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함께 새해 증시의 1월 효과 뚜렷해질 것. 상승 과정 속 증시 흔들림은 비중확대 기회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Commodity

상반기에도 주도 자산은 금, 하반기에는 에너지로 전환을

- FED의 정책금리 인하 + 장기채 신뢰성 문제가 만든 금 가격 랠리. 고민은 올해 금리 인하 속도
- 그러나 변하기 시작한 통화정책 성격(금리 인하 → 국채 매입 등), 유동성 추가 반영 가능한 금 가격
- 다만, 문제는 뒤늦게 유동성 반영할 에너지, 올해 4/4분기 귀금속 → 에너지로 주도권 변화 주목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대신증권 신성장산업] 1 월 Top-Picks: 씨어스테크놀로지, 노머스, RF 머트리얼즈

- [씨어스테크놀로지] 지속 성장 기대
- [노머스] 중국 모멘텀 점화, IP 가치 재평가 구간
- [RF머트리얼즈] 루멘텀향 매출 성장 본격화 시작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한송협. songhyeop.han@daishin.com,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4Q25 Preview] SK 하이닉스: 두쫀쿠보다 달달한 HBM 칩스

- 2026년 영업이익 100조원 전망. 차별화된 수익성 기반 성장 지속.
- 주주환원 및 사이클 변동성 축소 노력 강화. Valuation 상방 열릴 것.
- 목표주가를 840,000원으로 상향. 매수의견 유지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최고치 돌파는 2026년으로 미뤄 두고 한 해를 마무리

- 고점 부담에도 4,200선을 지켜낸 코스피, 하단을 지지한 반도체
- 귀금속, 원자재 시장 급락. 글로벌 증시 단기 수급부담 가능성
- 특징업종: 2차전지 업종 계약 축소 악재 / 미디어엔터, 건설업 상승

고점 부담에도 4,200선을 지켜낸 코스피, 하단을 지지한 반도체

–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장중 사상 최고치(11월 4일 4,226.8pt)에 근접했으나 심리적 저항과 차익실현 영향으로 하락. 동시에 새해 기대감이 공존하며 4,200대를 유지하며 약보합 마감. 2025년을 2,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연간 +75.6% 상승. 이는 1999년(+82.8%) 이후 최고치

– 코스피 상승 종목수는 334개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지만 연간 상승을 주도한 반도체 업종이 오늘도 상승하며 코스피 하단을 지지. 장중 삼성전자는 12만원, SK하이닉스는 65만원 선을 돌파하며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미국정부의 2026년 중국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 허용. 전일 미국 기술주 하락에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마이크론, 엔비디아와 AMD의 GPU 단가 인상 등 호재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가 이어지는 중

반도체: SK하이닉스(+1.7%), 삼성전자(+0.3%), 제주반도체(+17.9%)

귀금속, 원자재 시장 급락. 글로벌 증시 단기 수급부담 가능성

– 기록적인 사상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던 귀금속 가격이 일제히 급락.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과 CME 선물거래소의 변동성 증가에 따른 증거금 인상이 맞물리며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 금(–4.5%), 은(–8.4%), 백금(–13%), 팔라듐(–15%) 폭락

– 레버리지 거래가 활발한 원자재 선물시장 가격 급락 시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 발생 가능. 추가 증거금 납입 확대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좋은 주식, 채권의 현금화 수요로 연결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비철금속업종 약세: 고려아연(–4.1%), 풍산(–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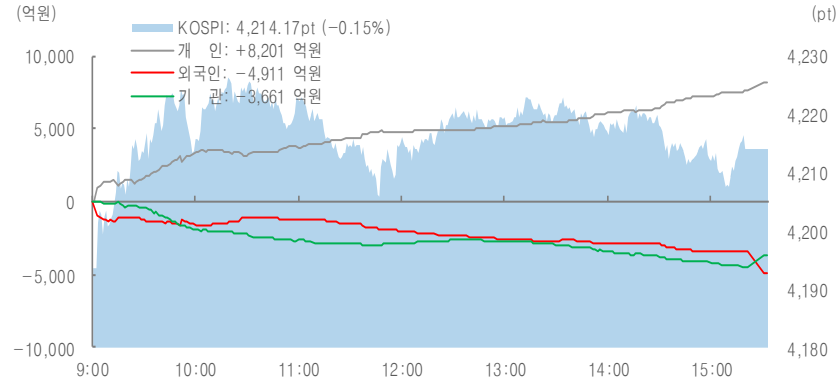
특징업종: 2차전지 업종 계약 축소 악재 / 미디어엔터, 건설업 상승

– **2차전지**: 엘앤에프(–9.9%)의 테슬라 공급계약 축소 공시
LG에너지솔루션(–3.0%), 에코프로(–6.3%), 삼성SDI(–2.9%)

– **미디어/엔터**: 이재명 대통령 '26년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 발표
하이브(+3.1%), 에스엠(+5.5%), 와이지엔터테인먼트(+7.3%), CJ ENM(+2.9%)

– **건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도시정비 수주 총액 증가 예상
HDC현대산업개발(+5.8%), 대우건설(+3.0%), GS건설(+2.0%)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다음주 시장은?

반도체 사이클과 CES, 그리고 고용

- 금리인하와 재정 정책으로 산업 성장 촉진중인 미국, 고용지표 대기중
- 핵심은 AI와 기술기업의 방향성, CES 2026은 성장주로의 수급 이동 자극
-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예정,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실적 전망 상향 조정

금리인하와 재정 정책으로 산업 성장 촉진중인 미국, 고용지표 대기중

2,400선에서 출발한 2025년 코스피는 연간 +75.6% 상승, 4,200선을 지켜내면서 11월 초 기록했던 사상최고치(4,226.8p)에 바짝 붙은 채 2025년을 마무리. 산타랠리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글로벌 AI모멘텀과 반도체 업황 성장 기대가 연말 코스피 상승을 주도. 26년 초에는 반도체로의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순환매, 훈풍 확산 예상

금리인하와 재정 정책으로 산업 성장 촉진 중인 미국, 핵심은 AI와 기술기업의 방향성. 고용지표 대기중,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 예정

1월 6~9일 개최되는 CES 2026 행사 주목. AI의 발전 방향성을 가늠하며 AI, 기술 성장주로의 수급 이동을 자극할 전망. 국내증시의 경우 반도체, 전기/전자, 모빌리티, IT, 바이오 등 기술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성장 스토리가 주가와 주도주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월 5일 젠슨 황, 리사 수 CEO의 키노트 연설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 또한 확인

다음주는 9일 12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ADP, JOLTS, 챌린저 등 각종 고용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 12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고용과 성장둔화 우려를 명분으로 금리를 인하했기에, 이번 고용보고서는 금리인하 사이클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고용 냉각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중요. 만약 고용이 약하게 나오면 추가 금리인하 전망과 함께 성장주 강세에 힘이 실릴 것. 그러나 ADP 고용은 전월(-3.2만) 대비 개선된 5만명 증가, 비농업 고용자수는 전월(+6.4만) 대비 둔화된 5.8만건 예상. 고용 개선은 아니지만, 경착륙도 아닌 완만한 증가로 해당 지표 발표 이후 금리인하 컨센서스 변화 방향을 확인

6일 12월 ISM 제조업지수 발표 예정, 전월 48.2 대비 소폭 개선된 48.4 예상. 해당 지수는 25년 3월 이후 9개월째 기준선 50을 하회, 제조업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미국 실물 경기 둔화 여부/정도와 기업이 체감하는 고용, 물가 상황 확인 가능

8일은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예정, 4분기 매출은 88.6조원, 영업이익 16조원이 예상되며 연간 영업이익은 39.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컨센서스 형성 중. 최근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과 HBM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 강화. 먼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은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 상향으로 최근 사상 최고치 랠리 진행.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실적 기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예정,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실적 전망 상향 조정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이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는 지난 4분기 동안 +30.4% 상승, 410p에 도달. 코스피 선행 P/E는 10.3배로 3년 평균 수준. 국내 대표 업종인 반도체의 수익성 증가는 국내 산업 전반의 훈풍으로 확산 기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매집 전략 유지. 추가로 CES 등 산업 이벤트의 관심과 연초 성장주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저평가 성장주에 주목. 2차전지(소재/제조), IT하드웨어, 유틸리티,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등 업종에 관심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병오년 새해 증시, 산타 랠리에 이은 1월 효과 기대

- 美 경제지표, 9일 25.12월 고용, 13일 12월 CPI, 14일 12월 PPI 주목
- 1월 금리 동결 결정되더라도 올해 연준 더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 높일 것
- 새해 증시의 1월 효과 뚜렷. 상승 과정 속 증시 흔들림은 비중확대 기회

현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의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후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 구간에 들어선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 경기 확장, 실적 개선, 미국향 자금 유입 지속, AI 혁명 주도, 감세 및 친시장적 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 펀더멘탈과 수급 그리고 정책(통화, 재정) 기대가 맞물린 추세적인 상승장에 놓여 있다. 앞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여러 가지 변수의 합이 우호적인 상황을 유지한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큰 굴곡없이 글로벌 증시는 우상향할 것이다(베이스 시나리오는 1/4분기 상승, 2/4분기 상승 제한 or 하락).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앞으로도 빈번하게 거론될 AI 버블론 역시, AI 큰 흐름을 되새긴다면 과도한 부정론을 경계해야 한다. 인프라 경쟁에 따른 순환적 투자, 부채 및 부외금융 활용 급증, 일부 기업(오라클)의 AI 센터 프로젝트에서 핵심 투자자 이탈에 대한 우려 등이 AI 버블론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1)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CapEx 투자 경쟁은 향후 2~3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기업들은 훈련을 통한 모델 성능 개선, 사용자 증가와 추론 수요 급증 등을 배경으로 사업 선점을 위한 대규모 연산, 전력 설비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2) 엔비디아, OpenAI 중심으로 활발해진 순환적 투자의 경우, 문제 발생 시 동 기업이 아니더라도 타 기업으로 추가 매출 전환을 통해 이를 상쇄할 가능성, 3) 클라우드 관련 일부 개별 기업(오라클) 문제일 뿐, 또 다른 AI 생태계 견인 축인 AI 모델, 반도체 등의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26.1/4분기 마이크론 실적에서 26년 HBM 물량 완판과 다음 분기 HBM4 대량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은 아직 AI 버블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해 준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산타랠리에 이어, 새해 첫 달에 다른 달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1월 효과가 기대되는 새해 증시가 될 것이다. 9일 발표될 25.12월 고용지표를 시작으로 13일 12월 CPI, 14일 12월 PPI 등 1월 FOMC 전까지 발표될 고용, 물가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인 노동시장 냉각 추세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물가 하락을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해석하는 현 금융시장 반응을 감안하면, 1월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금융시장 집단 지성에 대해 어느 정도 경종을 울릴 여지도 있다. 1월 금리 동결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준이 더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되면서 새해 증시의 1월 효과는 뚜렷해질 것이다. 상승 과정 속 증시 흔들림은 비중확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주 중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26.1.5~1.11)

경제지표 & 이벤트명	국가	일정	전기치	예상치	방향성	내용 및 시사점
12 월 CPI / PPI	중국	1.9	0.7 / -2.2 % YoY	- / -	- / -	PPI, 38 개월 연속 하락세. 과잉 공급과 기업 가격 하락 맞물린 결과
12 월 고용지표	미국	1.9	64/ 4.6 / 3.5 천명, %, % YoY	55/ 4.5 / 3.6 천명, %, % YoY	▼/ ▼/ ▲	민간 고용 둔화 등 점진적인 노동시장 냉각 추세 유지. 금리 인하 조건 부합
1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	미국	1.10	54.6 / 4.2 / 3.2 P, P, %	52.6 / - / - P, P, %	▼ / - / -	소비자심리, 12 월에 이은 개선 여부. 여전히 높은 불가 부담에 대한 불만 지속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기준일: 26.1.1)

Commodity

상반기에도 주도 자산은 금, 하반기에는 에너지로 전환을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금리 인하+장기채 신뢰성 문제가 만든 금 랠리. 고민은 금리 인하 속도
- 그러나 정책 성격 변화(금리 인하→비전통 방식)로 추가 상승 가능한 금
- 다만, 문제는 뒤늦게 유동성 반영할 에너지, 4/4 분기경 주도주 변화 유의

달라지기 시작한 정책 성격, 한번 더 확장될 유동성 속 추가 상승하게 될 금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025년을 마무리했다. FED의 정책금리 인하와 장기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각국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헷지 수요를 일으킨 결과라 볼 수 있다. 폐장일을 앞두고 CME 거래소의 증거금 인상 이슈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온스당 4,200~4,300달러대를 유지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홀로 2025년 원자재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을 정도로 성과는 분명했다.

물론 올해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물가 견인 자산인 유가의 기저를 고려하면 2차례 이상 정책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금 가격에는 매력적인 환경이다. 다만, 정책금리 인하는 이미 8부 능선을 넘어선 상태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 순-횟수를 보더라도 2023~2025년과 같은 속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올해 각국 중앙은행들을 통한 헷지 수요는 2025년과 같을 수 없으며 유동성을 뒤쫓는 은과 구리 역시 2025년과 같은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온스당 5,000달러까지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정책 성격의 변화에 있다. 지금까지 유동성이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확장됐다면 앞으로는 비전통 방식을 통해 조달될 가능성이 높다. FED는 QT를 종료하고 국채 매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IB들의 족쇄였던 SLR 규제는 올해부로 완화된다. 여기에 차기 연준의장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의해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장될 유동성, 이를 선반영하는 금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이다.

뒤늦게 유동성 반영할 에너지 가격, 하반기에는 섹터 로테이션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귀금속 중심의 상승은 계속될까? 그렇지 않다. 상반기(늦어도 3/4분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하반기(특히, 4/4분기)에는 에너지로 주도권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유가와 천연가스로 구성된 에너지 섹터는 유동성 지표나 다름 없는 금 가격을 18~20개월 후행한다. 비미국 중심의 유동성이 2025년초부터 팽창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4/4분기가 유동성을 반영하게 될 구간이 된다. 이는 통화정책을 방해할 요인이자 금 가격 상승 속도를 늦출 장애물이다.

특히, 미래 신규 공급에 대한 비관론은 섹터 로테이션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사우디발 증산은 미 셰일 기업들을 비롯한 경쟁자들의 유전 개발을 늦추고 있다. 신규 유정당 개발 이익은 낮아진 유가 탓에 적자 상태이며 이로 인해 향후 12개월 CapEx 예상 지수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20년과 2015년 때도 사우디발 증산은 경쟁자들의 유전 개발을 방해했는데 이는 그 다음해였던 2021년 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 에너지 가격 회복을 유발했다. 이번 역시 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4/4분기에는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귀금속 중심의 원자재 시장, 하반기에는 유동성의 후폭풍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대신 신성장산업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한송협 songhyeop.han@daishin.com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씨어스테크놀로지	Not Rated	Not Rated
노머스	Not Rated	Not Rated
RF머트리얼즈	Not Rated	Not Rated

1월 Top-Picks: 씨어스테크놀로지, 노머스, RF머트리얼즈

- [씨어스테크놀로지] 지속 성장 기대
- [노머스] 중국 모멘텀 점화, IP 가치 재평가 구간
- [RF머트리얼즈] 루멘텀향 매출 성장 본격화 시작

[씨어스테크놀로지] 지속 성장 기대

thynC 확산 → 매출 급성장, OPM 40%대 레버리지 실현. 국내 침투 초입 + 중동·미국 진출로 병상 기반 성장 가속. 설치와 구독, AI 결합한 반복매출 플랫폼 → 이익 체질 강화

[노머스] 중국 모멘텀 점화, IP 가치 재평가 구간

엔터테크 기업으로 아티스트 IP 기반 공연, 팬플랫폼, MD, 콘텐츠를 제공하는 솔루션 업체. 2026년 매출액 1,194억원(+50.1%), 영업이익 305억원(+65.4%) 전망. 글로벌 투어 확대, 1월 본격 서비스 예정인 중국 fromm 서비스 수혜로 외형 성장 두드러질 것. 추가적으로 공연 capa 확장, 중국 공연 규제 완화 등은 추가 업사이드로 작용할 전망

[RF머트리얼즈] 루멘텀향 매출 성장 본격화 시작

2026년 매출액: 768억원, 영업이익 85억원 전망. 2026년부터 루멘텀향 매출 본격화에 따른 수혜 본격화 구간 진입. 스케일 어크로쓰인 DC간 투자도 본격적인 투자 궤도에 진입.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됨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 배)

	씨어스테크놀로지		노머스		RF 머트리얼즈	
	25F	26F	25F	26F	25F	26F
시가총액	16,478		3,080		1,927	
매출액	399	740	796	1,194	591	768
%yoy	392.6	85.5	15.5	50.1	32.8	30.0
영업이익	99	250	184	305	67	85
OPM(%)	24.8	33.8	125.0	65.4	11.3	11.0
순이익	68	232	175	244	7	26
ROE	45.0	61.2	16.9	19.0	1.7	6.0
PBR	53.6	29.6	2.2	1.8	5.3	5.0
PER	250.7	73.2	13.1	9.4	324.1	86.0

주: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컨센서스 기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arnings Preview

SK하이닉스 (000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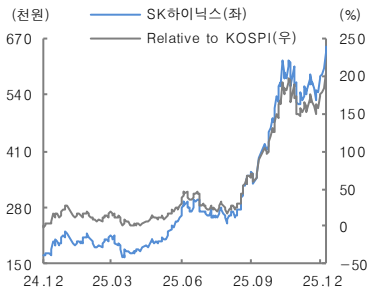
두쫀쿠보다 달달한 HBM칩스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840,000** 상향
현재주가 (25.12.30)	**651,000** 반도체업종

KOSPI	4214.17
시가총액	473,93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4.25%
자본금(보통주)	3,65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51,000원 / 164,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5,819억원
외국인지분율	53.83%
주요주주	에스케이스퀘어 외 7 인 20.07% 국민연금공단 7.3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2.8	87.3	122.9	274.4
상대수익률	14.4	52.2	62.5	113.2



- 2026년 영업이익 100조원 전망. 차별화된 수익성 기반 성장 지속.
- 주주환원 및 사이클 변동성 축소 노력 강화. Valuation 상방 열릴 것.
- 목표주가를 840,000원으로 상향. 매수의견 유지.

2026년,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가 다가온다

4Q25 실적은 차별화된 수익성을 재차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1) 절제된 판매 성장, 2) 성과급 충당금 반영 속에서도, 4Q25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16.8조원에 이를 것. 강화된 이익 체력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사상 최초로 100조원 대 영업이익 시대를 열 것이라는 판단.

1) HBM: 2026년 출하량은 190억 Gb로 전년대비 54% 성장 전망. HBM4 12단 품질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해결 가능한 문제. 1Q26 내 제품 인증을 완료하고, 2Q26부터 공급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전체적인 경쟁 심화 환경 속에서도, 2026년 Nvidia 내 물량 기준 점유율은 63%로 1등 지위를 유지할 것. 중국향 H200 수출 재개 시, 물량의 추가 Upside 또한 기대 가능.

2) 범용 DRAM: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급 부족 사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 1Q26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을 통해 경쟁사와의 범용 DRAM ASP 격차를 상당 부분 축소해갈 것. DRAM 1c Capa Ramp up이 본격화되며, 범용 DRAM 제품 대응력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 Twin Engine (HBM+범용 DRAM) 효과가 2026년 온기 반영되며, 강한 이익 성장을 이끌 것.

3) NAND: Solidigm이 서버 QLC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본사 NAND 경쟁력도 단품 중심으로 상당 부분 개선. 약점이 또 하나의 강점으로 변모 중.

시대의 변화, 달라지는 대응 방식

본질적 기술 경쟁력 우위에 더하여 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 그렇다면, 주가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이익 전망 상향 분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840,000원 (Target P/B 3.2배 적용)으로 상향.

1) 주주환원 강화 목적으로 ADR을 발행할 가능성. 1Q26 내 구체화될 것.

2) SPC 설립을 통해 구조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AI 시대에 맞춰 자금 조달을 효율화하고, 궁극적으로 사이클의 변동성 Risk를 줄이려는 노력.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32,766	66,193	95,602	165,946	174,045
영업이익	-7,730	23,467	44,848	100,776	76,027
세전순이익	-11,658	23,885	48,174	104,119	79,375
총당기순이익	-9,138	19,797	39,377	78,089	58,737
지배지분순이익	-9,112	19,789	39,376	78,088	58,734
EPS	-12,517	27,182	54,087	107,264	80,678
PER	NA	6.4	9.4	4.8	6.3
BPS	73,495	101,515	154,310	260,087	339,365
PBR	1.9	1.7	4.2	2.5	1.9
ROE	-15.6	31.1	42.3	51.8	26.9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SK하이닉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